

왕안이 소설을 통해 살펴본 상하이 제반 도시문제

김진희*

<目 次>

1. 들어가는 말
2. 상하이, 근대도시에서 현대도시로
3. 상하이 제반 도시문제
 - 1) 비좁은 주거 공간
 - 2) 도시 재개발
 - 3) 지역이기주의
 - 4) 혼잡한 교통
 - 5) 장년층 실업
 - 6) 수질오염
4.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상하이(上海)는 이민도시이다. 400여 년 전 한적한 어촌에 불과했던 상하이는 1843년에 중영난징조약(南京條約)으로 정식으로 개항하면서 외국인이 정착하게 되었다. 그 후 수많은 중국인들이 일과 새로운 기회를 찾거나 태평천국의 난과 항일전쟁 등을 피해 상하이로 오게 되었고 상하이는 20세기 초에 이미 근대도시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 경희대 중어중문학과 강사

지속적인 인구의 증가로 거대도시를 이룬 상하이는 중국의 개혁, 개방과 정부의 특수한 배려 하에 급속히 성장하였고 다른 나라의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공장의 도산과 실업인구가 늘어나고, 교육이 붕괴되고, 생태계가 악화되며, 범접행 기구가 폭력적으로 변하고, 사회신용 체계가 와해되고 있다. 또한 문화와 도덕 수준의 전반적인 하락이 이어지고 대중의 사회 신용도가 악화되며 정부의 영향과 사회적인 동원력이 떨어지고 있다.¹⁾ 본 논문은 이러한 거대도시 상하이가 지니고 있는 현대도시의 제반문제를 상하이작가 왕안이(王安憶)의 작품을 통해서 살펴보려한다.

왕안은 푸지엔성(福建省) 통안(同安)이 본적인 이주민 작가이다. 왕안이(王安憶)는 어머니 루즈지엔(茹志鵑)을 따라서 1살 때 상하이로 이주하게 되었고 그 후 현재까지 상하이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50여년을 상하이에서 살아온 왕안이는 상하이의 속성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작가이다. 상하이 작가이면서 본토인이 아닌 왕안이가 묘사한 상하이의 커다란 특징은 도시를 묘사할 때 언제나 한 발짝 뒤에 물러서 객관적인 눈으로 살피는 것이다. 왕안이가 상하이를 주제로 집필한 작품은 대부분이 자신이 어렸을 적 살았던 구식골목을 배경으로 묘사한 작품들이다. 왕안이의 작품들은 이런 골목을 배경으로 주인공의 삶이 펼쳐지며 역사적 사건과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아래에서는 거대도시 상하이가 지니고 있는 현대도시의 제반문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서구사회의 도시와 제3세계의 도시의 형성 배경과 그 특징 및 상하이의 역사적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려한다. 그런 다음 상하이가 지니고 있는 도시문제 중 주택문제, 도시개발, 지역이기주의, 교통문제, 실업문제 및 환경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왕안이(王安憶)의 작품을 통해서 살펴보려한다. 왕안이의 작품을 통해서 상하이의 제반 도시문제를 살펴보는 것은 상하이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도시문제에 대한 이해와 함께 앞으로 상하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사회학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본다.

1) 왕샤오밍 글, 박자영 옮김, <새로운 '이테올로지 지형'과 문화연구>, 《21세기 중국의 문화지도—포스트사회주의 중국의문화연구》, 임춘성·왕샤오밍 역음, 중국 '문화연구' 공부모임 옮김, 현실문화, 2009, p.71.

2. 상하이, 근대도시에서 현대도시로

전통적인 시각에서의 도시는 많은 인구와 밀집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집단으로서 복잡성, 편리성, 이질성, 익명성 및 변화성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²⁾

서구 사회에서 도시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산업혁명에 의해 생산방법이 기계화되어 대량생산 체계가 갖추어진 후부터이다. 기계화에 의한 대량생산은 생산 활동에 필요한 인구를 집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교역을 증가시켜 교역의 중심지를 형성시켰다. 이렇게 인구가 집중되고 인구의 수와 밀도가 증가되자 대량생산에 의한 생산품의 교역 중심지로 시장이 발달되면서 이곳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하였다. 이와 같이 서구의 도시화는 도시의 기반이 자연스럽게 마련된 다음에 그 기반위에서 도시화가 진행되었다.³⁾

초기의 도시사회학자들은 국가발전의 핵심체로서 도시의 기능을 강조하고 도시를 이상향으로 그려왔다. 그러나 현대 도시사회는 이들의 이론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시카고학파로 대표되는 도시 생태학적 시각⁴⁾에서는 도시가 하나의 독립된 유기체로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현대도시로 넘어오면서 설득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것은 유기체론적 성장과 발전을 계속해야 할 도시가 도시의 슬럼화, 빈곤, 실업의 증가, 빈부격차로 인한 계급갈등, 교통 혼잡, 환경오염 및 일탈과 폭력행위 등이 증가하면서 차츰

2) Robin J. Rytow, "Refining the rural-urban fringe" in L. S. Bourne (ed.), *Internal structure of the C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1. 김익기, <도시문제> 교영복 편, 《현대사회문제》, 사회문화연구소, 1993, p.44에서 재인용.

3) 김병무 지음, 《현대사회학의 이해—인간과 사회 그리고 문화》, 청목출판사, 2001, p. 245.

4) 가장 고전적인 시카고학파 학자들은 파크(Robert E. Park), 버제스(E. W. Burgess), 맥켄지(Roderick D. McKenzie) 등이다. 파크와 그의 동료들은 식물군과 인간공동체간의 이론적 유사성에 관심을 갖고 도시생활의 유형을 설명하는데 협동과 경쟁과 같은 사회과정에 관한 개념뿐만 아니라 적응, 계승, 침투, 지배 등의 생태학적 과정을 기술하는 개념을 이용하였다. Park, Robert E., Ernest W. Burgess and R. D. McKenzie (eds.), *The C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25. 양준, 박상태, 석현호 공저, 《현대사회학》, 민영사, 2003, p.365에서 재인용.

‘이상향’을 상실하게 되었기 때문이다.⁵⁾

비서구사회의 많은 도시들은 서구사회의 팽창주의 정책에 따른 제국주의적 식민 정책에 의해서 자본주의 국가들의 원료획득과 상품판매를 위한 거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도시화가 촉진되었다. 즉 비서구사회의 도시화는 서구의 자본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개척과정에서 시작되어, 식민지가 독립된 후 세계적인 교역 중심지로 발전하였다.⁶⁾ 제3세계의 도시화 문제를 정치경제학적인 접근방법으로 설명한 로버츠(Roberts)는 도시현상을 도시자체의 문제로만 국한시키지 않고 국가체제 및 세계경제체제와의 연결 속에서 살펴보고 있다.⁷⁾ 그는 도시화를 자본주의 발전과 확대의 산물로 보면서 자본주의경제의 확대와 농촌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해 야기되는 지역 간의 불평등한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그가 특히 도시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시 중심부로 몰려들고 있고 이것이 비농업 고용의 핵심을 이루면서 경제발전의 근간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나라들의 도시화는 주로 대규모적인 이농에 의해 일어나고 있으며 이농민들로 이루어진 도시의 고용구조는 도시 빈민의 주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남미를 비롯한 제3세계에서는 경제개발에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부의 간섭이 나타나고 있다.⁸⁾ 이와 같은 현상은 중국이 개혁과 개방을 한 후 1990년대 초반 중국 정부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자본주의 경제방식을 따라 상하이 푸둥(浦東)을 개발하고 개방하기로 선포한 중국의 대표적 경제도시인 상하이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1949년 이전 상하이시 인구증가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농촌출신 외지인들이 상하이로 들어온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1929년에서 1936년간 매년 적게는 10만 명에서 많게는 20여만이 상하이로 들어왔다. 1950년도 초반에도 외지인들의 대량 유입은 여전해서 1951년부터 1954년까지 매년 21만 명이 상하이로 들어왔다. 그러나 1958년 호적제도가 실시되자⁹⁾ 인구유동이 고정되면서 외지인이 상하이로 들어오

5) 김익기, <도시문제>, 《현대사회문제》, p. 50.

6) 김병무 지음, 《현대사회학의 이해—인간과 사회 그리고 문화》, p.246.

7) Bryan Roberts, *The Cities of Peasants*,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1978. 김익기, <도시문제>, p.51에서 재인용.

8) 김익기, <도시문제>, 《현대사회문제》, p.51.

는 일은 차단당했다.¹⁰⁾

1970년대 말 중국사회가 개혁을 시작한 이래 상하이의 허다한 곳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1980년대 말과 90년대 초 대 내외적으로 발생한 사건은 개혁 그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시장경제는 점차 사상해방에 대체되어 효율, 경제성장률, 소비, 연봉 등과 같은 개혁의 주요한 어휘들은 국가와 개인 생활의 최상의 목표가 되었다. 미국을 현대화와 발전의 최우수 본보기로 삼았고 뉴욕, 로스엔젤리스, 런던과 도쿄 등과 같은 '세계'는 중국이 본을 받아야 하는 최종 목적지가 되었다. 1990년대 초에 있었던 이러한 개혁의 대전환은 상하이에 개혁자의 높은 지위를 부여하였다. 그것은 중국 최고 지도자가 상하이에서 새로운 형태의 개혁 방향을 지정했을 뿐만 아니라 상하이도 역사와 지리, 정부투자라는 삼중의 우세를 힘입어 신속하게 사회에 새로운 위력을 드러냈다. 상하이는 겨우 십년 만에 창장(長江) 삼각주 지구를 이끌고 일약 중국경제 최고 발전지구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상하이는 전국각지에서 출로가 없거나 생계를 찾거나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최우선으로 선택하는 곳이 되었다.¹¹⁾

3. 상하이 제반 도시문제

1) 비좁은 주거 공간

왕안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도시공간은 골목이다. 골목은 다시 경제수준에 의해서 네 가지 등급으로 나뉜다. 이 네 가지 등급은 아파트 촌, 양옥집들, 스킨(石庫門)¹²⁾ 골목길 집들과 판잣집이다. 여기서는 먼저 이렇게 네 등급으

9) 중국의 호적은 상시거주지에 두어야 한다. 중국 국민은 이런 상시거주지에 변동이 일어날 때 라야 호적을 옮길 수 있다. 호적을 옮기려면 옮기고자 하는 곳에 직장이 있거나 학교에 다니거나 군복무를 한다거나 해야 한다.

10) 楊東平, 《城市季風》, 北京: 東方出版社, 1994. p.340, 정지인, 〈王安德的《富萍》與移民城市上海〉, p.163에서 재인용.

11) 王曉明, 〈從淮海路到梅家橋〉, 《半張臉的神話》, 廣西師範大學出版社, 桂林, 2003, p.112-113.

로 나뉜 지역에 관한 묘사를 간단히 살펴보면서 상하이의 도시구역을 이해하고자 한다.

서쪽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골목은 경비가 더욱 삼엄하다. 방은 전체가 하나의 공간에 있어 문만 굳게 걸어놓으면 만 명의 장사가 달려든다 해도 꿈쩍도 않는다. 벽은 방음벽이라 이웃에서 개가 짖고 닭이 울어도 들리지 않는다. 집과 집 사이는 널찍하게 떨어져 있어 늙어죽을 때까지 이웃끼리 절대 만날 일이 없다.¹³⁾

주로 서쪽지역에 위치한 아파트촌은 주위 환경이 좋기 때문에 가장 높은 등급에 속한다.

그 다음 등급은 양옥집들이 몰려있는 지역이다. 이런 집들은 주로 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식골목지역이기도 하다.

신식골목은 허세를 버린 모습이다. 무늬를 아로새긴 야트막한 철문이다. 2층에는 몸을 내밀 수 있는 창문만으로는 부족해 거리풍경을 잘 보기 위해 발을 디디고 설 만한 크기의 베란다를 만들어놓았다. 담장 밖으로 뻗은 뜰에 핀 협죽도는 숨길 수 없는 봄기운이 완연하다. 하지만 저택은 여전히 외부에 대한 경계를 풀지 않고 있다. 뒷문은 독일제 용수철 자물쇠로 채워져 있고 아래층 창은 철제 격자문으로 되어 있다. 야트막한 철문 위에는 뾰족한 방범 철심이 쳐있으며 안뜰은 집 중앙에 있어서 들어갈 수는 있어도 나갈 수는 없어 보인다.¹⁴⁾

이곳은 시끄러운 도심에서 한적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이다. 하루 종일 문이 닫혀있는 양옥집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곳의 삶은 평범한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할 곳이고 앞 쪽에 있는 큰 거리의 시끌벅적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곳이다.

세 번째 공간은 도심 중앙에 위치한 오래된 거주지이다. 이곳은 상하이의 대표적인 건축양식인 스쿠먼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곳으로 상하이 골목에서 가장

12) 골목과 대로 사이에 있어 이 두 공간을 구분시키는 문이다. 문틀은 돌로 되어있고 나무로 된 문에 붉은 색이나 검은 색이 칠해져 있다.

13) 王安憶, 《長恨歌》,海口: 南海出版公司, 2003, pp.4-5.

14) 王安憶, 《長恨歌》, p.4.

유서 깊은 곳에 속한다. 왕안이 소설 속에서 이러한 곳은 대부분 상하이 중심가에 위치한 화이화이루(淮海路)이며 이 공간을 무대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스쿠먼 골목들은) 그윽하고 널찍한 저택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어, 고관의 저택 같기도 하다. 그 집들은 문과 담장에 삼엄한 보루를 만들어놓았다. 일단 문을 열고 들어서면, 정원은 깊지 않고 응접실도 크지 않아 두세 걸음만 걸으면 나무 계단이 바로 머리위에 있다. 나무 계단은 구불구불 돌지 않고 곧바로 2층에 있는 규방에 이르도록 되어 있고, 계단에 오르면 거리 쪽으로 난 이층 창문이 그 자태를 드러낸다.¹⁵⁾

끝으로 빈민들이 모여 사는 판자촌이다. 이런 판자촌들은 서양식 주택 주변과 아파트 뒤쪽에 혼잡하게 널려 있으며 넓은 빈민촌을 형성하고 있다.

고개를 들어 그곳의 대로변 건물들을 보면 대부분이 나무판으로 된 벽이며 손을 뻗치면 이층 창문에 닿을 수도 있다. 빗물 방지 처마들은 이미 빗물에 삭아져 시커멓다. 건물 아래 작은 점포들은 속칭 구멍가게로 바늘이나 실 등 잡화를 파는 곳이다. 그곳의 골목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으니, 일률적으로 거의 모두 꼬불꼬불하며 어떤 곳은 돌길 위에 자신이 직접 만든 헛간도 있다. 당신은 이런 농가 같은 집이 도시의 중심지에 있으리라는 사실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¹⁶⁾

도심에 위치한 또 다른 판자촌에 관한 묘사를 살펴보자.

울퉁불퉁하고 긴 청뚜루, 즉 화이하이루와 창러루(長樂路)의 중간지점 도로변에는 작고 어두컴컴해서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작은 문이 항상 열려 있다. (……) 문 안쪽이 어두컴컴한 것은 뒤 창문이 없고 앞창문도 색깔이 바란 천으로 가려져서 희미한 광선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불을 켜다면 그 방이 더 이상 작을 수 없을 정도로 작고, 낡은 구두나 구두 재료들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방 중간에 앉아서 구두수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장용홍의 아버지다. 문을 마주하고 있는 것은 좁고 가파른 계단이고 난간 없이 직접 이층으로 이어져 있다. 2층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다락방이며 제일 중간

15) 王安憶, 《長恨歌》, p.15.

16) 王安憶, 《長恨歌》, p.254.

용마루부분에서만 몸을 일으킬 수 있다.¹⁷⁾

이 묘사는 《長恨歌(장한가)》의 주인공 왕치야오(王琦畬)의 딸인 웨웨(微微)의 친구 장용홍(張永紅)의 집에 대한 설명이다.

〈本次列車終點(이번 열차의 종점)〉은 정부의 정책으로 농촌으로 하방되었던 상하이 지식청년 천신(陳信)이 10년 만에 상하이로 돌아온 후 마주대하게 되는 생활, 일, 집, 혼인 등에 대한 문제를 다룬 작품이다. 천신만고 끝에 상하이로 다시 돌아온 천신은 자신의 고향인 상하이에 대해 외지인이 느끼는 것과 비슷한 이질감을 느낀다. 이 작품에는 주인공 천신이 상하이로 돌아온 이후 기거하게 되는 공간이 묘사되어 있는데 소설에서는 그 공간을 직접적으로 ‘불법 가건물’로 부르고 있다.

천신은 꿇어오르는 화를 참으며 ‘불법 가건물’로 들어섰다. 방안은 칠혹같이 어두워 손을 뻗어 다섯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지만 채널이 잘 맞추어 지지 않은 반도체 라디오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¹⁸⁾

주인공 천신은 방 두 칸짜리 집에서 산다. 어머니는 두 평도 채 안 되는 6평방 미터짜리 작은 방에서 사시고, 천신이 어렸을 때 형, 동생과 함께 사용했었던 큰 방은 형이 결혼한 후에는 형부부와 어린 조카가 살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동생이 기거할 공간이 없어지자 손바닥만한 뜰에 불법가건물을 짓게 된 것이다. 천신은 상하이로 돌아온 후 동생과 같이 이 불법건축물에서 생활한다. 이 불법건축물은 결혼하지 않은 형제의 방인 셈이다.

왕샤오밍(王曉明)¹⁹⁾은 이런 판잣집에서 살았던 옛 친구를 떠올리며 “내 친구

17) 王安憶, 《長恨歌》, p.249

18) 王安憶, 〈本車列車終點〉, 《王安憶短篇小說編年》卷一 牆基1978-1881, 人民文學出版社, 2009, p. 219.

19) 왕샤오밍은 1955년에 상하이에서 태어났다. 상하이대학 문화연구학과와 화동사범대학 중문학부 교수를 겸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현대문학에서 문화연구로 영역을 확장해서 상하이 및 중국문화연구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임춘성·왕샤오밍 위음, 《21세기 중국의 문화지도》, p.344.

왕안이 작품을 통해 살펴본 상하이 제반 도시문제 13

의 아버지는 개인 전기기술자였는데, 친구네는 우리 집 옆에 있는 골목입구 벽 쪽에 겨우 두 사람이 나란히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좁디좁은 2층 판잣집을 지어 다섯 식구가 살았다”²⁰⁾라고 하였다. 이러한 상하이 주거공간의 부족현상은 1950년대가 아니라 이미 20세기 초에 시작되었다. 아편전쟁 이후 개항한 상하이는 20세기 초에 이미 공업화와 상업화가 이루어진 근대 대도시로 성장했으며 중국과 극동지역의 경제, 상업, 문화 중심지가 되었다. 그에 따라 상하이로 인구가 대거 몰려들게 되었고, 주택건설 속도가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주택이 부족하게 되었다.²¹⁾

왕안이가 2007년에 집필한 〈驕傲的皮匠(당당한 구두수선공)〉은 상하이 구식 골목 한 귀퉁이에서 구두수선 일을 하는 외지인 출신 구두수선공의 삶과 사랑을 묘사하고 있는 소설이다. 이 소설에는 구두수선공의 삶과 함께 골목사람들의 삶도 같이 교직되어 있다. 이 골목은 변화하는 사회의 영향을 받아 이미 커다란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곳에 사는 골목사람들의 삶도 이러한 사회변혁에 영향을 받아 이미 변화를 일으켰거나 앞으로 변화가 일어날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 소설의 여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견띠(根梯)는 연애결혼을 해서 상하이 중심지에 있는 구식골목으로 시집온 외지인이다. 왕안이는 견띠가 결혼 전에 살았던 상하이 외곽에 있는 자베이(閘北) 지역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그곳에서는 수도꼭지 하나를 17, 8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터라 수도꼭지를 서로 빼앗지 않으면 물 쓰는 일은 아예 생각도 말아야 한다.²²⁾

이러한 묘사를 통해서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밀집해서 살고 있나를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견띠가 시집온 상하이 중심지구 노른자위 땅의 주거환경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견띠가 사는 곳은 단칸방이고 화장실과 부엌

20) 왕샤오밍 글, 박수경 옮김, 〈건축에서 광고까지: 최근 15년간 상하이의 공간변화〉, 《21세기 중국의 문화지도》—포스트사회주의 중국의 문화연구 p.339.

21) 왕샤오밍 글, 박수경 옮김, 〈건축에서 광고까지: 최근 15년간 상하이의 공간변화〉, 주 10. pp.474

22) 王安憶, 〈高傲的皮匠〉, 《采萍采藻》, 世界當代華文文學精讀文庫, 明報月刊出版社, 香港, 2008, pp.18.

은 이웃집과 같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어찌됐던 설사 겨우 단칸방에 화장실과 부엌은 이웃집과 같이 사용한다 해도 초로 윤을 내는 마룻바닥에 알루미늄 새시 창문이 달린 집들이 있는 서쪽 지구 신식 골목에서 산다는 것은 신분계층을 나타내는 것이다. 사람들은 다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라고 하지 않던가?²³⁾

여기서 말하는 '피라미드 맨 꼭대기(上只角)'는 예전에는 상하이의 조계지를 가리켰으나 현재는 상하이시에서 부유한 계층이 사는 곳을 가리킨다.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비록 사는 환경은 열악하더라도 이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하나만으로도 커다란 자부심을 느꼈는데 그것은 자신의 신분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심지구의 판자촌 이외에 상하이는 문화대혁명을 거치며 도시 변두리의 빈민들을 도시중심부의 양옥집으로 대거 이동시켰다. 즉 양옥집에 살고 있던 자산가들의 가택을 몰수하여 빈민들을 이주시킨 것이다. 다음은 《長恨歌》에 나오는 묘사이다.

가장 기묘한 것은 화원이 있는 서양식 집인데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정원을 들여다보아도 그 안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정원 안에는 빨래 건조용 막대기를 수없이 걸쳐 놓아 마치 빨래 공장과도 같다. 화단이 있는 곳에는 부엌을 만들었는데 밀짚한 반달 모양의 테라스를 돌로 나누어 부엌 두 개를 만들었다. 다시 좀 더 들어간다면 마치 미궁에 들어선 것과 비슷하다. 특히 밤이 되면 당신의 두 눈이 어둠 속을 헤매더라도 귓전의 소리는 아주 잘 들린다. 기름에 달군 프라이팬에 음식을 볶는 소리, 물이 펄펄 끓는 소리, 어린 아이 우는 소리, 라디오에서 새어나오는 음악소리 등이 사방팔방에서 들려온다.²⁴⁾

많은 가구를 수용하기 위해 양옥집의 내부를 개조한 후 수많은 가구가 한 집에 모여 살게 되는 또 다른 형태의 빈민굴을 묘사한 것이다. 《驕傲的皮匠(당당한 구두수선공)》 에도 이와 비슷한 묘사가 나온다.

23) 王安憶, 〈高傲的皮匠〉, 《采萍采藻》, p.20.

24) 王安憶, 《長恨歌》, p.249.

골목 안에 있는 집들은 양옥집 형태로서 넓은 계단이 있고 아치형 대문에 벽난로 굴뚝이 지붕 경사진 면에 서있다. 예전에는 고위인사가 거주했었지만 나중에는 많은 방들로 잘게 나뉘어 수많은 거주자들이 이사를 왔다. 안채와 사랑채 사이에 있던 안뜰은 막고서 건물을 올리고 옥상에도 다락방을 더 올려 건물 골격이 비대해지고 골목도 시끌벅적해졌다.²⁵⁾

이 묘사는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증축과 개축이 성행했음을 알 수 있는 묘사로서, 상하이의 주거난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불법 건물들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과 동시에 주민의 안전을 해치게 될 수도 있다.

3. 도시 재개발

140년 전 유럽 상인과 군대가 황푸강변(黃浦江邊)에 조계를 세우고 근현대도시로서 상하이의 역사를 시작했을 때, 상하이 도시의 공간은 거의 전적으로 유럽과 아메리카의 자본과 제국주의 팽창의 강력한 논리에 복종했고 그 밖의 다른 모든 것들은 뒤로 물러났다. 1949년 봄 인민해방군이 상하이로 진격하면서 도시공간은 새로이 개조되기 시작하였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상하이 건축공간의 변화는 부지불식간에 일어나 '사람들의 노동'으로 '사람들의 생활'을 정의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완비된 넓은 공장과 마오쩌둥(毛澤東)의 동상, 공산당의 깃발을 높이 달아 놓은 강당은 날마다 '인생의 의의는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작업, 생산노동, 정치와 사상의 혁명에 있다'라고 말했다. 사회주의시기에 질서 정연하고 획일적인 '공공'공간이 신속하게 팽창해 개인공간을 난폭하게 점거했다고 한다면, 1990년대 이후의 상황은 오히려 그 반대이다. 1990년대 이후로는 '개인'공간이 신속하게 팽창해 다른 공간들을 빼앗아 버렸다. 주택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간이 신속하게 확장

25) 王安憶, 〈高傲的皮匠〉, 《采萍采藻》, p.65.

되면서 상하이에는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즉 활동시간이 늘어나 많은 사람들이 결코 집에만 머물지 않음에도, 도시는 오히려 점점 주택단지로 변해가고 주택과 그것에 필요한 건물의 조합 계획에 관한 논리는 갈수록 전체 도시의 공간 구성에 깊이 영향을 미친다.²⁶⁾

〈驕傲的皮匠〉에는 그 배경묘사로 상하이의 도시규모가 확장이 되는 묘사가 나온다. 이 와 관련된 묘사는 상하이 중심부에 위치한 한 골목에서 구두수선 일을 하는 구두수선공이 좌판을 벌여놓고 구두수선을 하고 있는 땅의 내력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王安憶은 “손바닥만 한 이 땅이 어떻게 젊은 구두수선공에게 귀속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려면 대략 이 근대도시 발전사까지 소급되어야²⁷⁾”한다면서 서두를 꺼내고 있다.

맨 처음 이 땅은 도시근교에 속하였는데 외국인들이 이곳에다 여기 사람들이 '外國墳山'이라고 부르는 공동묘지를 만들었다. 공동묘지 주변에는 꽃집과 초파는 가게 그리고 나무로 조각하거나 돌을 쪼아 만든 십자가, 작은 천사, 예수 성모상 등 무덤을 장식하는 물건들을 파는 가게들이 있었다. 후에 공동묘지 주변에 있는 농토와 맞닿은 곳은 중국인을 매장하는 곳으로 개간되어 공동묘지 규모가 커지면서 주변에는 중국식 장례풍습에 따르는 향축과 지전, 수의, 은박지로 된 지전, 중국식 관을 파는 가게가 생겼다. 더 나중에는 묘지가 점점 확장되었고 가장 끝자락은 잡초만 무성한 무덤이었다. 마침내 어느 날 건설부(工部局)는 토지를 정리해 주택지구를 건설하기로 계획하였다. 첫 번째 이루어진 중요 사업은 이곳 사람들이 말하는 '외국분산'인 토지를 정리하는 일이었다. 신문에 우선 7일간 광고를 내어 중국인들에게 묘지를 이장하러 오게 한 후 연고자가 없는 묘는 뼈를 수습해서 땅을 평평하게 고른 다음 한꺼번에 뼈를 화장하였다. 남은 외국인 묘지는 담을 둘러쌓았다. 이러자 주변에 있던 장례업체들은 누가 내쫓지 않아도 자연스레 사라졌다. 이곳에 골목들과 양옥집이 준비하게 들어차 거리모습이 어렴풋이 갖추어지자 그 때 이곳에서 가게를 차렸던 주인들도 되돌아왔지만 하나같이 업종을 전환하였다. 어떤 사람은 과일가게를 차리고 어떤 사람은 훈뚱가게를 차리고 또 어떤 사람은 골목을 지키는 경비 일을 하였다.²⁸⁾

26) 왕샤오밍 글, 박수경 옮김, 〈건축에서 광고까지: 최근 15년간 상하이의 공간변화〉, pp.333-334.

27) 王安憶, 〈高傲的皮匠〉, 《采萍采藻》, p.2.

28) 王安憶, 〈高傲的皮匠〉, 《采萍采藻》, p.3.

도시구역의 확장의 역사를 촘촘히 설명하고 있는 이 구역은 도시규모의 확대에 따라 일찌감치 교외지역에서 도심지역으로 바뀌었고 시끌벅적한 시내번화가와는 도로 하나를 경계로 하고 있는 주거지역이 되었다. 이렇게 교외지역에서 시내 중심지로 변한 이곳에서 일하는 구두수선공은 하지만 부단한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정비계획이 있을 때마다 자리를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했다.

골목에서 정돈사업을 한다고 골목 어귀에서 영업을 하던 사람들을 쫓아내면 그들은 어디로 가는가? 구리장이는 재래시장으로 가고, 양말을 짚는 여인은 집으로 돌아가고, 더운물 파는 가게는 영업을 그만두고, 군만두 가게는 그 지구에 있는 음식회사에 합병되어 새롭게 합작식당 간판을 내건다. 구두수선좌판은 자리를 거둬들여 도로 맞은편에 길게 자리 잡은 도심화원 앞으로 옮긴다. (……) 시간이 한 바탕 흘러 도로정비를 할 때가 되면 구두수선 좌판은 또 자리를 쫓겨나게 된다. 구두수선공은 좌판을 정리해 먼것번에 있었던 골목어귀로 다시 돌아온다. (……) 얼마간 평온하게 지낸다손 쳐도 또 어떤 부처에선가 쫓아내러 올 것이다. 구두수선공은 언제나 일언반구하지 않고 좌판을 정리해 다시 자리를 옮기는데 여전히 도로 맞은편 쪽으로 옮긴다. 이번은 아마 도심화원 쪽이 아니라 커다란 대문 입구일 것이다. (……) 어느 날인가 건물이 대대적으로 보수공사를 하게 되면 구두수선공은 다시 그 자리를 나올 것이다. 좌판을 정리해서 골목 어귀나 도심화원으로 되돌아 갈 것이다.²⁹⁾

도시계획의 변경에 따라 수없이 자리를 옮겨 다니며 영업을 하는 구두수선공은 하지만 이 거리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으면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다.

이 소설에는 이러한 작은 부분의 도시계획뿐 아니라 상하이 중심가에 위치한 구식골목에 더욱 커다란 변화가 생기는 모습이 나온다. 새로운 건물들을 신축하기 위해 골목에 있던 오래된 집들을 철거하는 것이다.

상하이에서 확연하게 축소된 공간은 바로 골목 입구에 있는 더운물 파는 가게

29) 王安憶, 〈高傲的皮匠〉, 《采萍采藻》, pp.3-5.

(老虎籠)나 구멍가게 그리고 좁은 길을 중심으로 한담을 나누던 장소들이다.³⁰⁾ 이런 장소들이 축소되면서 원주민들이 외곽지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시내 중심지는 중심상가 지역이 확장되거나 고급아파트 건축 등으로 재개발이 되는 곳이 많다. 일반적으로 상업중심지 지대는 매우 비싸므로 사무실, 전문상점, 고급식당 등 특정용도로만 그 경제성을 갖는다.³¹⁾ 이와 관련되는 묘사는 이 골목의 또 다른 구성원인 진룽(金蓉)의 친정에 대한 묘사에서 보인다.

원래 그녀(진룽)는 꺾뚜를 깔보면서 자신은 좋은 친정이 있다고 자부했었다. 진룽의 친정은 시택과 거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는데 구역이 더 중심지역이고 금싸라기 땅이라서 개발업자들이 갈기갈기 찢어놓아 골목 하나가 꼬리 한 토막만 남았다. 진룽의 친정은 바로 이 꼬리 쪽에 있어서 언제 어느 때 얼마나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겨야할지 모른다.³²⁾

진룽은 꺾뚜보다 나이가 조금 어리고 직장에 다니지만 미모가 딸려 언제나 그다지 당당하지 않았다. 진룽은 이럴 때마다 자신의 친정을 떠올리며 위로를 받았었다. 진룽의 친정은 상하이 중심부에 있는 금싸라기 땅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곳을 개발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주를 하게 되면 보상을 받게는 되지만 자신의 친정은 이제 이 금싸라기 땅을 벗어나게 되어 노른자 땅에서 산다는 특권의식이 사라지는 상황이 되는데다 앞으로 어디로 가서 정착할지 모르는 신세가 되기 때문이다.

상하이에서는 토지가 징발된 교외지역의 농민이든지 아니면 강제 철거된 시내 지역 주민이든지 간에 대다수가 보상에 대해 순종적으로 받아들여 토지를 넘거나 새로운 곳에 정착하였다. 1990년대 말 이전에는 일부 도시주민이 이주 협의를 하지 않았지만 정부 부처와 토지개발상이 보상금을 올려주거나 이주를 강행시키고 심지어 인명 상해나 살인까지 행하는 수단을 다양하게 사용하자 2000년 이후에는 저항사건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³³⁾

30) 왕샤오밍 글, 광수경 옮김, 〈건축에서 광고까지: 최근 15년간 상하이의 공간변화〉, p.314.

31) 양춘, 박상태, 석현호, 《현대사회학》, p.370.

32)王安憶, 〈高傲的皮匠〉, 《采華采藻》, p.24.

33) 왕샤오밍 글, 광수경 옮김, 〈건축에서 광고까지: 최근 15년간 상하이의 공간변화〉, 주 71.

《驕傲的皮匠》에는 이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심의 모습이 나온다.

이어진 길은 철축 같은 어둠속에서 걸었다. 그곳은 공터로, 사람들은 이미 거주지를 옮겨 집들도 헐렸지만 개발업자가 자금이 끊겨 방치해놓아서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렸다. 공터 주변 멀찌감치는 집들이 죽 남겨져 있는데 이전에는 틀림없이 골목 안쪽이었을 것이다. 창문 앞의 불빛이 희미하게 공터에 떨어지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³⁴⁾

상하이 도시공간의 변화 중 규모나 속도 면에서 가장 커다란 변화는 주거공간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이들 거주지는 차례로 철거되었다. 양옥집에 섞여 살던 빈민들은 대부분 이사를 갔고, 도로변 집들은 이로써 모습을 쇠신하여 문가에 모모회사라는 스테인리스 간판을 걸었다. 좁고 구불구불한 작은 길들이 도로나 곧고 넓은 길로 바뀌면서 길 양쪽에 있던 낡은 집들도 사라졌다. 15년 동안 약 200만 명이 도심에서 외곽지역으로 옮겼다. 이 '외곽지역'의 위치 또한 부단히 바깥으로 이동하고 있다.³⁵⁾

pp. 486-487.

34) 王安憶, 《驕傲的皮匠》, 《采萍采藻》, p.67.

35) 왕샤오밍 글, 박수경 옮김, 〈건축에서 광고까지: 최근 15년간 상하이의 공간변화〉, pp. 316-339.

4. 지역이기주의³⁶⁾

왕안이는 〈上海的女性(상하이의 여성)〉에서 상하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몇 그루의 플라타너스를 보고 상하이라는 이 도시가 로맨틱하다고 생각하지 마시라. 이곳에 있는 모든 것은 숙달된 기술로 벽돌 한 장 기와 한 장을 쌓아 올린 것이다.(……) 어떤 아파트든 맨 꼭대기 층 베란다에서 이 도시를 내려다보면 도시의 거칠음이 한 눈에 들어온다. 뻣뻣한 성냥갑 같은 시멘트 집들은 벌집이나 개미굴처럼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다. 2, 30년대의 옛 일을 그리워하지 말지니 그것은 무대 앞의 조명일 뿐, 무대 뒤는 바로 이 뻣뻣한 벌집이나 개미굴들이며 그 속에는 이를 악물고 주먹을 불끈 쥔 각오가 숨겨있다. 이곳은 정말 어떤 시적인 정취도 없는 곳이며 노래 역시 사람을 분발시키는 그런 노래이다. 당신은 공사장에서 철야로 대낮같이 불을 밝힌 전등불을 볼 수 있고 사방에서 울리는 시멘트 깨는 천공기 소리만을 들을 수 있느니(……) 개미처럼 꿈틀대는 인생에 당신은 어떤 시적인 정취를 바라는가?”³⁷⁾ 이 글은 상하이를 회의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상하이에 대한 왕안이의 이런 회의적인 심경은 1988년 《上海文學(상하이문학)》에 발표한 〈悲慟之地(비통한 땅)〉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1980년대 이후 상하이 거주민들은 대략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우선 1980년대 이전부터 상하이에 거주한 사람과 1980년대 이후 상하이로 이주한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후자는 다시 상하이 호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류를 라오(老)상하이 인이라 하고 두 번째 부류를 신(新)상하이 인, 이라 하며 세 번째 부류를 유동 인구라 할 수 있다.³⁸⁾

이 소설은 스쿠먼(石庫門) 골목에 사는 라오 상하이 인들이 유동인인 외부인의 침입을 거부하며 지역이기주의를 보이면서 농촌에서 올라와 잘못 골목에 들어선

36) 이 부분의 내용은 김진희, 《傳記的 觀點에서 본 王安憶 文學의 轉變 研究》 숙명여자대학교 박사논문, 2009, pp.128-129의 내용을 가져왔다.

37) 王安憶, 〈上海的女性〉, 《重建象牙塔》, 上海遠東出版社, 1997, pp.85-86.

38) 임춘성, 〈포스트사회주의 중국의 문화 경관〉, 《21세기 중국의 문화지도》—포스트사회주의 중국의 문화연구, 주 17, p.437.

한 젊은이를 죽음으로 내몬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골목(裏弄)은 상하이 특유의 주거 방식이자 보통사람들이 생활하는 장소이다. 이곳에는 다른 현대적인 주거방식에서는 형성할 수 없는 친밀한 이웃 간의 관계가 있다. 골목은 강력한 공간적 응집력으로 이 안에 거주하는 집들을 귀속시키고 있다. 모든 집들은 넓은 골목길이나 좁은 골목길을 마주하고 있다. 골목길은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주민들의 공공장소가 된다. 이런 주거형태는 기본적으로 중국 전통주택이 지니는 대외적인 폐쇄성을 유지하고 있다. 비록 시끄러운 도심에서 살고 있지만 문을 닫으면 문밖과는 딴 세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은 하나같이 돌로 된 문턱에 검은 칠을 한 단단하고 두터운 나무로 되어있으며 문 위에는 동으로 만든 고리가 있다. 이런 건축양식을 상하이 사람들은 ‘스쿠먼’이라고 부른다. 이 문은 밖의 시끄러운 소리를 차단하고 문안에 거주하는 사람들 간의 강력한 지역적 귀속감을 형성시킨다. 이런 생활환경 속에서 이웃 간은 긴밀하게 뭉치며 강력한 응집력을 형성한다.³⁹⁾

소설은 상하이에서 생강 품귀 현상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된 지우꺼(九哥)가 동향 사람들을 데리고 상하이로 생강을 가져오면서 시작된다. 상하이로 생강을 팔러 온 일행 중 한 사람이며 주인공인 천더성(陳德生)은 지우꺼를 따라 잠깐 백화점 구경을 하는 사이 인산인해를 이룬 고객들 틈에서 지우꺼를 놓치게 된다. 천더성은 정신이 아득해지며 지우꺼를 찾아 나서고 백화점에서 찾지 못하게 되자 당황한 나머지 외부인이 한 번들어가면 빠져나가기 어려운 꼬불꼬불한 골목으로 들어서게 된다.

그가 (이곳에) 왔을 때 눈앞에 그렇게 많은 갈림길이 나타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뒤를 돌아보았을 때 거의 매 십 보마다 하나의 갈림 길이 나타나 그에게 상당히 어려운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 첫 번째 선택을 할 때만도 그는 그래도 기억을 더듬으며 한참을 생각했다. 두 번째 선택할 때는 조금은 조금해져 더 이상 생각하지도 않고 한 골목으로 뛰어들었다. 세 번째, 네 번째가 되자 그는 다시는 머리를 굴리고 싶지 않아 야바위 놀음이라도 하듯 아

39) 中國城市活力研究組編, 《上海의性格》, 中國經濟出版社, 北京, 2005, pp.156-164. 김진희, 傳記的觀點에서 본 王安憶 文學의 轉變 研究, p127에서 재인용.

무렇게나 골목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는 일곱 번째 갈림길을 만났을 때가 돼서야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⁴⁰⁾

정오 무렵부터 이렇게 골목을 헤매기 시작한 천더성은 해가 누엣누엣해지도록 지우꺼와 만나기로 한 장소를 찾지 못하게 되자 피곤함과 불안으로 이성을 잃게 된다. 한편 골목 사람들은 낮선 사람이 골목에 들어와 긴장한 표정으로 몇 시간을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자 수상한 사람이 출현한 것으로 여겨 경계의 눈빛으로 쳐다보게 된다.

사람들은 문을 열고 아무런 말없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를 주시하고 있다. 그는 부득이하게 몸을 돌려 사람들의 눈길을 받으며 되돌아 갈 때 창피한 듯 고개를 숙였지만, 화살처럼 자신의 가슴을 찌르는 사람들의 눈길을 여전히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종종히 골목을 빠져나갔지만 어떤 사람은 안심하지 못하고 그를 따라 나와서는 그가 이미 막다른 골목 끝까지 가본 골목으로 다시 들어서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구슬땀을 줄줄 흘리며 미궁 같은 골목을 들락날락하였다.⁴¹⁾

이런 그의 행동에 어떤 긴장한 사내는 험상 굳은 표정을 지으며 그를 위협한다. 혼비백산한 천더성은 간신히 골목을 빠져나가 한시름 놓았다고 생각했으나, 그의 앞에는 긴장한 사내가 이끄는 사람들이 그를 쫓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천더성은 도망하는 것만이 살길이라 여기고 눈앞에 있는 건물로 뛰어들어 계단을 오르고 결국 건물옥상까지 가게 된다. 건물 주변은 그를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경찰까지 출동한다. 사람들이 그를 잡기 위해 옥상까지 따라와 포위망이 좁혀지자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천더성은 건물 아래로 몸을 날린다.

왕안이는 이 소설에서 생강을 팔러온 시골 청년과 구경하러온 방관자들 그리고 청년을 쫓는 골목사람들을 적대적인 관계로 만들어 이 청년을 죽음으로 내몰게 만들었다. 〈悲慟之地〉는 상하이라는 대도시의 폐쇄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소설로, 특유의 골목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상하이는 낮선 자의 접근을 거부하는 '비통한

40) 王安憶, 〈悲慟之地〉, 《文工團》, 文化藝術出版社, 北京, 2001, p.203.

41) 王安憶, 〈悲慟之地〉, 《文工團》, p.204.

땅'인 것이다.

5. 혼잡한 교통

왕안이 1981년에 발표한 〈本車列車終點〉에는 주인공 천신이 상하이로 돌아와 여러 수속을 밟기 위해 동생과 같이 외출해 버스를 타는 묘사가 있다. 사람으로 넘쳐나는 버스 정류장에서 천신이 버스를 타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상황과 발디딜 틈도 없는 만원버스 속에서 설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애쓰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

천신은 버스 정류장으로 들어서는 버스가 이미 더 이상 탈 수 없을 정도로 만원버스인데다 버스 정류장에 가득한 사람들을 보고 동생에게 다음 번 버스를 타라고 한다. 하지만 동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버스에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된다고 하면서 버스에 탈 것을 요구하자 천신은 하는 수없이 버스에 오르기로 결심한다.

그래 타자, 그는 힘이 세니까 말이다. 그는 사람들 틈을 헤치며 있는 힘껏 안으로 파고들어 간신히 차문에 달린 난간을 잡고 버스 계단 발판에 올라섰다. 그는 또 몸을 한 번 세계 앞뒤로 움직인 후 다시 앞뒤로 흔들며 종단으로 진군하듯 안으로 깊숙이 파고들은 후 마침내 시끄럽게 아우성치는 소리 속에서 창가 옆자리로 파고들어와 손잡이를 붙잡았다. 그러나 그는 서있는 자리가 상당히 불편하다고 느꼈다. 아무리 잘 서 있으려 해도 서지지 않고 앞사람 머리에 부딪히거나 뒷사람 허리에 부딪히며 전후좌우 적당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다. (……) “둘째 형, 이렇게 이쪽으로 몸을 기울여봐. 그래, 바로 그거야. 왼손으로는 손잡이를 잡으면 돼. 좋지?”

확실히 훨씬 나아졌다. 천신은 안정된 자리를 확보한 셈이라고 쳐서 휴-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비록 여전히 이리저리 치이면서 가슴이 다른 사람 등에 밀착되고 등은 또 다른 사람 가슴에 맞닿아 있지만 어쨌든 다리가 제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그가 고개를 돌리자 어떤 목계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같이 차곡차곡 좌측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⁴²⁾

42) 王安憶, 〈本車列車終點〉, 《王安憶短篇小說編年》卷一—牆基1978-1981, 人民文學出版社, 2009, p.214.

이 묘사는 80년도 초기 상하이의 교통문제를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과잉 인구와 부족한 교통수단으로 인해 상하이 인들은 나름대로 만원버스를 타는 노하우를 터득한 것이다. 버스에서 몸을 비스듬히 기울이면 “버스가 감당할 수 있는 적재량이 최고도에 이르게 되어”⁴³⁾ 최대인원을 승차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한편 〈悲慟之地〉에는 사람과 차들로 넘쳐나는 거리가 묘사되고 있다. 다음은 천더성 일행이 처음 상하이에 도착해, 가지고 온 생강을 멜대에 매고 북적이는 거리를 걸을 때의 묘사이다.

그들이 지고 가는 멜대가 사람과 부딪칠라치면 사람들은 성을 내며 욕을 한다. 그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자신을 욕하고 있다고 여기고 (서로 거리가 벌어지지 않도록) 멜대와 멜대를 바짝 붙여 앞으로 나갔다. 자동차가 달려와 그들을 사방으로 달음질치도록 겁을 주었지만 도망가지도 못하고 사람들 틈에 갇혀있다. 이제는 죽었구나하는 순간이 되자 그 차는 썹-하는 소리를 내며 그들을 우회하며 지나갔다.⁴⁴⁾

다음은 《長恨歌》에 묘사된 거리의 교통 상황에 관한 내용이다.

변화기의 일요일은 의외로 좀 무시무시하다. 사람들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시끄러운 소리는 하늘을 찢어 조금만 부주의해도 사람들에게 깔려 죽을 지경이다. 길을 건너는 것도 겁이 나고 자전거와 차들이 벼를 복을 드나들 듯 빈번히 왕래하고 있어 발자국을 떼기가 정말로 쉽지 않다. 이 도시는 폭풍우가 지나간 것처럼 변해서 원래의 우아한 모습은 갑자기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⁴⁵⁾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상하이는 경제발달과 함께 차량이 증가하였지만 시민들의 무질서한 교통의식과 낮은 문화수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교통문제에 대해서 왕안이는 자서전격 소설인 〈烏特邦詩篇(유토피아 시편)〉에서 “내가 생활하고 있는 대도시는 차량은 날로 늘어나는데 도로는 협소하고 행인은 대부분

43) 王安憶, 〈本車列車終點〉, 《王安憶短篇小說編年》, p.214.

44) 王安憶, 〈悲慟之地〉, 《文工團》, p.175.

45) 王安憶, 《長恨歌》, p.250.

왕안이 작품을 통해 살펴본 상하이 제반 도시문제 25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으며 도로를 아무렇게나 건너는 것을 좋아한다. 교통체증은
일상적인 사건이 되어 조금도 놀랄 일이 아니다”46)라고 하면서 교통 문제를 총괄
하고 있다.

6. 장년층 실업

상하이는 1990년대 초반 푸둥을 비롯한 북쪽의 쿤산(昆山), 쑤저우(蘇州) 등지
에 다양한 규모의 서구식 공업단지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도시 중심부와 그
외곽에 자리 잡았던 기존의 ‘사회주의’ 공업공간은 신속하게 축소되었고 국영기업
들은 대부분 도산을 하게 되었다.

〈驕傲的皮匠〉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대부분 4, 50대에 속하는 인물들이다. 이
들은 크던 작던 사회와 정부시책에 영향을 받아 자신의 삶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
킨다. 먼저 이 소설의 여주인공이며 구두수선공 견하이(根海)와 정분이 나게 되는
견띠와 그녀의 남편 샤오띠(小弟)의 경력에 관한 묘사를 살펴보자.

견띠는 ‘4,50대’에 속하는 사람으로 원래 일했던 화학제품 공장이 타이완 사
람에게 팔리자 공원들은 해고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견띠는 55세 법정 퇴직
연령이 되지 않아 ‘사회보험 협의(協保)’47)에 가입하였다. 처음 몇 년간 견띠는
젊은 아가씨들처럼 사방으로 일을 찾아다녔다. 처음에는 주상복합 건물에서
청소부 일을 하였고 다음에는 민영회사에서 주방 일을 하였다. 또한 80세에
취타를 배우 듯 평생교육에 참여해 수납원 양성교육을 받고 마트에서 카운터

46) 王安憶, 〈烏特邦詩篇〉, 《傷心太平洋》, 長春: 時代文藝出版社, 2001, p.35.

47) ‘協保’는 재취업 서비스센터에 가입한 해고인이 서비스센터와 원래 직장 3자 간에 사회보험
관계를 보류하는 것을 허락하는 협의를 가리킨다. 이는 재취업 과정에서 해고된 사람을 노동
력 시장으로 가게하기 위해서 채택한 정책이다. 부수적인 정책이 ‘사회보험협의’에 가입한 사
람에게 다음과 같은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사회로 다시 나갈 때는
《노동수첩》에 상관규정에 근거해 노무 일에 종사한다. 직장에서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채용하면 사회보험료나 사회보험료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http://baike.baidu.com/view/1297501.htm?fr=ala0_1_1 2010.05.06

일을 하였다. 그러나 모든 직장들이 그녀가 다녔던 상황을 똑같이 직면하듯 처음에는 주상복합 건물에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은행에 저당을 잡혀 모든 세입자가 쫓겨났고 고용자도 해고되었다. 그 다음 그 민영회사도 파산을 하였고 또 그 다음에는 하룻밤 사이에 대형슈퍼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 소매업자들의 생업을 싹쓸이해 그녀가 카운터 일을 보고 있던 작은 마트도 문을 닫았다. 계산을 해보면 3개월 교육을 받고 일은 겨우 2달 했을 뿐이다.(……) 이때 남편의 공장 역시 파산하여 '사회보험 협의'를 들었다.⁴⁸⁾

다니던 국영기업의 파산으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꺾띠는 일을 찾기 위해 청소부며 주방일이며 카운터 보는 일 등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이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직면한 상황은 어느 직종을 가리지 않고 같은 상황이어서 다시는 직장을 구할 수 없게 되었다.

꺾띠는 하는 수 없이 같은 상황에 처한 남편과 상의하여 자기사업을 하기 위해 도시락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자 주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들이 실업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환영을 한다. 하지만 실제로 도시락을 만들어 팔게 되자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엌은 하루 온종일 가스불로 열기가 가득 차 위층 다락방 바닥을 뜨겁게 달구었고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다듬고 버리는 야채 이파리와 생선비늘은 공동하수구를 막히게 해 하수가 넘치게 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골목사람들은 연대해서 이들이 도시락 장사를 중지하도록 상하이시에 탄원서를 올린다. 이들은 결국 도시락 사업을 접게 된다. 그 후 꺾띠는 오전에는 댄스홀에 가서 취미로 댄스를 배우고 점심때는 집으로 돌아와 구두수선공의 점심을 데워주는 일을 하면서 푼돈을 번다. 꺾띠의 남편 샤오파는 격일 근무를 하는 택시 운전사가 된다.

다음은 또 다른 인물인 진룽이 현재의 직업을 갖게 된 과정을 설명하는 묘사이다.

진룽은 실직을 한 후에 회계사 자격증을 획득하였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무엇이나 넘쳐나지 않아 회계사가 비교적 적어 신속하게 중소기업에 취업해 회계를 보았다. 그러나 몇 년 후에 이 기업은 경영이 중단되고 합병 전환되어 두 번째 실업이 되었다. 이때 인력시장에는 더욱 젊고 학력이 높은 사람들로

48) 王安憶, 〈驕傲的皮匠〉, 《采萍采藻》, p.17.

넘쳐나 진룽은 그저 개인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수밖에 없었다.⁴⁹⁾

중국은 국영기업이 파산하면서 4, 50대 직원들이 대량 해고 되었고 외국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 중국에 들어서며 고학력의 젊은 인재들을 대량으로 뽑아 신세대와 구세대 간의 물갈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진룽은 이런 사회 현실의 희생양이 되어 다시 번듯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 자리나 전전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다음은 또 다른 인물 이예슈(이예슈)의 파란만장한 경력에 관한 묘사이다. 80년대 말 이예슈가 다니던 공장은 하락세를 타게 되면서 몇 번이나 생산품목을 바꿨다. 그래도 회사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 회사는 다른 회사와 겸병, 연합 경영, 합자, 세수 개혁, 주식제 등 수많은 방안을 채택했지만 결국에는 회생하지 못하고 회사 전체를 외국자본에 팔았다. 말로는 체제개혁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 문을 닫게 되고 만 것이다.

장급 간부들은 소속부문을 다시 배치 받았지만 노동자들은 일찌감치 퇴직을 하든가 퇴직을 기다리고 있다. 이예슈 같은 중등간부들은 또 다른 길이 있으니 근무연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는 것이었다. 이예슈는 근무연수가 길어 미리 받은 퇴직금이 두둑했다. 퇴직금을 받고 돌아와 은행에 넣어두자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지만 사람들의 부유한 정도가 높아지고 통화 가치가 팽창하자 이 금액은 점점 별개 아닌 것이 돼버렸다. 이와 동시에 이예슈가 재취업을 하는 상황도 사람을 낙담케 하였다. 그는 기계전문가여서 다른 부문에는 쓸모가 없었다. 더욱 타격을 받은 것은 인력시장에 와서 이예슈는 자신이 이미 노령인구 대열에 끼게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는데 사실 그때 이예슈는 아직 50줄에 들어서기 전이었다. 이예슈는 '40대니 50대니'하는 칭호를 가장 싫어한다. 이 칭호는 사회의 약자에 속하는 그룹을 의미해 다른 사람이 동정을 베풀어 도움을 주어야하는 대상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⁵⁰⁾

이예슈는 90년대 정부개혁 정책의 또 다른 피해자인 것이다. 비록 퇴직을 하면서 얼마의 퇴직금을 받기는 했지만 이예슈는 더 이상 일할 곳을 차단당하고 부인

49) 王安憶, 《驕傲的皮匠》, 《采萍采藻》, p.24.

50) 王安憶, 《驕傲的皮匠》, 《采萍采藻》, pp.37-38.

이 경영하는 옷가게에 상품이 입고될 때는 가서 도와주고 부인 대신 가사 일을 하며 골목의 단골 마장꾼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노령화 시대에 이에שו와 같은 장년 실업자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7. 수질오염

상하이 1950년대 이후 30여 년 동안 원래 있던 공업건물 이외에 수많은 공장 과 창고, 부두가 이곳의 가장 주요한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되었다. 그 시설들은 교외지역은 물론이고 시 중심지역에 더욱 많이 분포돼 있었고 심지어는 골목(弄堂) 안에도 몰려 있었다. 그러나 그 후 15년 동안 '도시계획'을 거치면서 공업건물 공간은 대부분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내부순환 고가도로(內環高架路) 안쪽에 있던 창고류는 물론이고 공장들도 거의 다 폐쇄되거나 이전되었고 시 중심지 바깥에 있던 대규모 공장들도 대부분 문을 닫아걸었다. 쑤저우허(蘇州河)도 일찍부터 옛 상하이의 공장 밀집 지역이었다. 이곳에는 사방에 큰 공장들이 있는데다가 특히 대규모 화학공장이 둘이나 있어 이 일대를 '폐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곳'으로 만들어 버렸다.⁵¹⁾

왕안이가 1989년에 집필한 《米尼(미니)》에는 간단한 필치로 황푸장(黃浦江)의 오염상태가 묘사되어 있다.

미니는 전차를 타고 와이탄(外灘)으로 와 황푸장을 따라 걸었다. 태양은 점점 솟아오르면서 강물을 반짝반짝 비쳤다. 그때의 강물은 10여년 이후처럼 그렇게 혼탁하지 않았다.⁵²⁾

여기서 가리키는 그때는 《米尼》의 첫머리에 구체적인 날짜가 나오는데 그

51) 왕샤오밍 글, 콕수경 옮김, <건축에서 광고까지: 최근 15년간 상하이의 공간변화>, pp. 310-311.

52)王安憶, 《米尼》, 王安憶自選集, 第五卷, 作家出版社., 1996, p.36.

왕안이 작품을 통해 살펴본 상하이 제반 도시문제 29
날짜는 1972년으로 미니(米尼)는 1972년 12월에 하방돼있던 농촌에서 상하이로 올라오게 된다. 그러므로 그 때로부터 10여년 후인 80년대 중반에 황푸장은 이미 오염되어 혼탁해졌음을 나타낸다. 이런 황푸장의 오염은 《長恨歌》 중 80년대를 중점적으로 묘사한 제 3부에도 묘사되어있다.

강물은 해를 거둬하면서 혼탁해지고 걸쭉해져 방파제에 부딪히는 소리는 모르는 사이에 몇 음조가 낮아졌다. 쭈저우허(蘇州河)는 두 말할 필요도 없어 한 정거장만 떨어져 있어도 그 역한 냄새가 코를 찌르니 직접 비료로 써도 될 정도이다.⁵³⁾

왕안이가 환경문제에 관해 묘사한 내용들은 많지 않지만 이렇게 얼마 되지 않는 필묵으로 묘사된 환경문제 중 수질오염 문제는 강물이 방파제에 부딪히는 소리가 몇 음조가 떨어졌다는 묘사와 쭈저우허의 물을 비료로 써도 될 정도라는 묘사를 통해서 오염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8. 나오는 말

상하이는 개항하여 역사 무대에 선 이래 중국 근현대사에서 줄곧 다른 어떤 곳에서도 대신할 수 없었던 역할을 맡았으며 중국 근현대화가 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상상의 공간이 되었다. 상하이가 현재의 ‘붐’을 일으키는 이유는 중국인들이 상하이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자신의 삶과 희망을 상하이와 연결시켜 중국 곳곳이 상하이가 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으로, ‘상하이 붐’의 배후는 근현대화의 서사이다. 그것은 바로 상하이의 근현대성으로 전체 중국의 근현대화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상하이 붐’ 속에서 상하이는 미시적인 표본이고 빛나는 과거일 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로는 전 중국의 근현대화와 미래를 가리키고 있다.⁵⁴⁾

53) 王安憶, 《長恨歌》, p.248.

54) 니원젠(倪文尖) 글, 김순진 옮김, 〈장아령 붐에서 ‘상하이드림’까지〉, 《21세기 중국의 문화

상하이 대표작가 왕안이의 작품 중 상하이를 주제로 쓴 작품들은 상하이 구식 골목에서 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상을 묘사하는 것을 통해서 “상하이 시민계층 생활방식을 문학창작의 풍부한 원천으로 삼는 것이다. 왕안이의 글쓰기는 무 시간으로 가득 찬 도시 상하이가 시대와 역사의 구체성과 생명력을 획득하는 것이다.”⁵⁵⁾ 왕안이의 작품 속에서 그 인물들이 살아가는 배경은 상하이의 과거와 현재의 생활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이러한 생활상은 바로 중국의 사회변혁을 살펴볼 수 있는 사회학적 자료를 제공해 준다.

왕안이가 상하이를 주제로 집필한 작품에는 필묵의 다소를 막론하고 현대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인 주택, 실업, 빈곤, 교통, 환경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사회문제가 담겨 있다. 특히 상하이의 중심지대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들에 나오는 비좁은 주택공간과 그곳에서 사는 인물들의 묘사는 문학계에서 최근 일고 있는 ‘상하이 화조풍월(花鳥風月) 붐’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특히 《長恨歌》 제3부에서도 시 중심부에 위치한 판자촌을 묘사할 때는 마치 독자에게 상하이가 보여주지 않기 위해 숨겨놓은 비밀이라도 폭로하는 어투로 “당신은 이런 농가 같은 집이 도시의 중심지에 있으리라는 사실은 아마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이다”⁵⁶⁾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悲慟之地》에서 묘사한 구식골목 사람들의 집단이기주의는 일반적인 도시의 특성인 이질성과 익명성의 특징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지역주민이 한데 뭉쳐 외부인의 침입을 잔혹하게 차단하는 대도시의 폐쇄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왕안이의 작품 속에 나타난 이러한 묘사들은 낭만적이고 자극적이며 활력이 넘치고 화려함만을 강조하는 다른 상하이 ‘노스텔지어’작가들의 작품 속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표현들이다.

최근 작품 특히 《驕傲的皮匠》에서는 중국정부의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변혁이 주인공들의 생활과 삶에 더욱 영향을 미친다. 상하이 인으로 대표되는 전 중국의 장년 실업문제와 경제변혁으로 인한 사회변혁이 여태까지 살아오던 주거지에 대대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모습들이 여실히 묘사되어 있

지도》, pp.428-431.

55) 張旭東, 〈現代性的 寓言: 王安憶與上海懷舊〉, 《中國學術》, 第三輯, 商務印書館, 2000, p.114.

56) 王安憶, 《長恨歌》, p.254.

왕안이 작품을 통해 살펴본 상하이 제반 도시문제 31

다. 이런 묘사들은 문학작품을 통해서 사회변혁을 직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사회학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묘사들을 통해 사회변혁의 영원한 현재 진행형인 상하이로 끊임없이 몰려드는 외지인들의 주거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거주지 개발로 인한 기존 철거민들의 주택문제도 이미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직 일을 할 힘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변혁으로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된 수많은 장년 실업자들의 문제들은 중국정부가 시행해야 하는 의료보험제도와 사회보장제도를 실현하는데 커다란 장애요소가 될 것이다. “도시는 (시골과는) 달라 어떤 것이던 한데 엉켜있어 떼려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물로 가득 찬 커다란 항아리’이라 하지 않던가! ‘오물로 가득 찬 커다란 항아리’라는 말은 정말 맞는 말이다!”⁵⁷⁾ 이 작품에서 왕안이가 도시를 총괄하는 이 말은 도시의 속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參考文獻》

- 王安憶 著, 《長恨歌》, 南海出版公司, 2003.
- 王安憶 著, 《重建象牙塔》, 上海遠東出版社, 1997.
- 王安憶 著, 《富萍》, 湖南文藝出版社, 2000.
- 王安憶 著, 《流逝》, 春風文藝出版社, 2002..
- 王安憶 著, 《米尼》, 王安憶自選集(第五卷), 作家出版社, 1996.
- 王安憶 著, 《傷心太平洋》, 時代文藝出版社, 2001.
- 王曉明 著, 《半張臉的神話》,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3.
- 吳義勤 主編, 《王安憶研究資料》, 山東文藝出版社, 2006.
- 고영복 편, 《현대사회문제》, 사회문화연구소, 1993.
- 김병무 지음, 《현대사회학의 이해-인간과 사회 그리고 문화》, 청목출판사, 2001.
- 김한준·백옥인·홍인옥 외 지음, 《현대도시문제의 이해》, 1989.
- 양춘, 박상태, 석현호 공저, 《현대사회학》, 민영사, 2003.
- 임춘성·왕사오밍 역음, 《21세기 중국의 문화지도—포스트 사회주의 중국의 문화연구》, 중국‘문화연구’공부모임 옮김, 현실문화. 2009.

57) 王安憶, 《驕傲的皮匠》, p.15.

鄭智仁, 王安憶的『富萍』與移民城市上海, 第九屆東亞漢學國際學術會議發表論文, 2007.

김진희, 《傳記的 觀點에서 본 王安憶 文學의 轉變 研究》, 숙명여자대학교 박사논문, 2009.

蘇國榮 著, 《戲曲美學》, 文藝藝術出版社, 1993.

《中文提要》

本論文以王安憶的城市主題的小說為研究對象, 主要討論了小說中反映出的上海諸般城市問題。比如狹窄的居所、頻繁變動的城市規劃、地區性利己主義、交通混亂、失業、環境污染等等。王安憶的小說中最可貴的作品則為揭露城市的殘酷性。如《悲慟之地》中關於拒絕外地人的進入, 讓人跳樓自殺的描寫; 《驕傲的皮匠》中有關四五十歲的長年失業的問題的描寫等。王安憶的小說不同于其他主要描寫上海花鳥風月的上海小說家的作品, 或多或少都反映了大城市所面臨的種種城市問題。王安憶的小說提供了用社會學的角度察看上海城市問題的好資料。

關鍵詞: 上海, 城市問題, 狹窄的住所, 變動的城市規劃, 地區性利己主義, 交通混亂, 失業, 環境污染

이 논문은 2010년 5월 10일에 접수되어 2010년 6월 17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0년 6월 21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